

‘분신’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 극한대결 가나

노조 특별교섭 안 받아들여지면 오늘 총파업... 사측 대응 주목

올 62만대 증산 계획 차질 불가피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조간부’ 분신사태의 파장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한 상태에서 사측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어 총파업과 증산 순환의 기로에 서있다.

노조는 특별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인 반면 기아차 광주공장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8일 전국급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간부의 분신 사태와 관련해 전남 회사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회 노조와 비정규직 분회 소속 노조원은 17일 오후와 18일 오전 각각 1시간씩 부분파업 및 단거부부를 진행했다.

노조는 또 전남 긴급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 사측과의 증산협의 등 모든 부서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 지부, 지회, 비정규직 분회 등이 참여하는 분신대책위를 구성해 비정

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은 정상 근무에 나서지만 사측의 특별교섭 수용 여부에 따라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로부터 특별교섭 요청 공문을 받고 밤늦게까지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사측은 전날부터 노조가 1시간씩 벌인 부분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임을 경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

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사측이 어떤 식으로든 노조와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부서협 의 중단 선언에 따라 광주공장이 올해 추진 중인 62만대 증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애초 지난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62만대 증산 계획은 그동안 노조의 대의원대회 일정 문제로 지연되어 지난 1일 가까스로 노사협의를 시

작했지만 3주 만에 또다시 중단되며서 이른 시일 안에 실현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노조의 관계자는 “특별교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으나 기본적인 틀도 갖추지 못한 채 흐지부지돼 왔다”며 “이번 분신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청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대강 수질개선사업 참여업체 심의위원·공무원에 12억 로비

민주 우원식 의원 주장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12억여원의 현금을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사업 입찰’에 참여한 K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업을 발주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심의위원들에게 휴가비와 명절 떡값, 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긴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총인은 물속에 함유된 인의 총량으로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총인이 증가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됐다.

문서에는 사업별로 현금 집행자와 거래선이 명시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나주총인의 경우 심

의위원에게 8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이는 공급가액(3억5000만원)의 2.3%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진주총인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각각 1200만원, 2억1350만원 등 2억2550만원이 건네졌는데 이는 공급가액의 6.7%에 이른다.

또 경산총인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원, 지자체 관계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전국의 총인 사업에서 로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서에는 조달청, 공정위, 환경부, 환경공단 등 관련 정부 기관이 등장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도 나왔다.

우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거론돼온 총인사업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빛낸 인물’ 매년 1명 선정 조각상 건립 추진

광주시가 ‘광주를 빛낸 인물’을 해마다 1명씩 선정해 조각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난극복, 학문·문화·예술 진흥, 인재양성,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 광주를 주 무대로 활약했거나 광주 출신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을 매년 1명씩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 역사인물 선정과 조각상 건립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고자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오는 5월 시민

대상 수상자 선정 때 ‘광주를 빛낸 인물’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인물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인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조각상 건립 장소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 공원, 주요도로, 해당 인물의 연구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유럽 주요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문학인, 장군, 행정가, 정치인 등의 동상을 광장 곳곳에 세우고, 도시의 역사를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



미국 텍사스 웨이코 북부지역에 위치한 웨스트시의 비료공장에서 17일 밤(현지시간)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잔해들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美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 200여명 사상

경찰 “5~15명 사망”... 인근건물 100채 파괴

미국 텍사스주(州) 중북부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17일(현지시간)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200여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심야시간인데다 추가 폭발우려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BC와 CNN 등 주요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와 10시께 텍사스 웨이코 북부지역에 위치한 웨스트시의 비료공장에서 두차례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의 게일 스카보로 대변인은 ABC 방송에 “현시점

에서 200여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40명이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망자 여부와 숫자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지 힐크레스트 병원에만 60명 이상이 입원했고 인근의 다른 병원 두 곳에도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숫자는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CNN 방송은 현지집에서 최소 두명의 급급대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웨스트시 위기관리담당자인 조지 스미스 박사는 적어도 6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말했다고 CBS 방송과 현지 지역방송인

KWTV 등은 보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5~15명이 사망하고 16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폭발로 인해 인명 피해 외에도 공장주변 건물들이 100채 가까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공장이 폭발하기 30분 정도 전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과 구조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의용소방대원으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토미 무스카 웨스트 시장은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며 “큰 버섯구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 폭발을 우려해 공장 인근 주민 2600명을 대피시키고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여수산단 종합방재센터 건립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공통현안 8건 건의키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부산시의회 김석조 의장)는 18일 광양 팔레모 호텔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여수 석유화학단지 종합방재센터 건립 등 8건의 공통 현안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의회 의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우윤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8건의 지역 현안의 해결을 요구했다.

채택된 지역 현안은 종합방재센터 건립을 비롯해 ▲동서통합지대 조성

▲전라선 KTX 운행 증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또 ▲공공기관 반부패 평가 기본계획 반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의정협의회와 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채택 등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김재무 의장은 “낡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광양판권을 아우르는 산재전문병원을 조속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 주요 시설을 관람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광경기자kroh@kwangju.co.kr

“호남고속철 공사, 광주 도로 무단침범”

오병윤 의원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광주시 구간 철도부지 확장 및 시설공사를 벌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무단침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부지 확장에 따라 기존도로가 단절되면 좌우 측 양쪽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춰 개설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충돌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옆으로 옮겨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광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침범한 채 위법한 공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 의원은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 광주시 구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간 구간 구도로에 연결만 했으며 도시계획상 폭이 10m인 곳은 6m로 만들었다.

공단은 또 설계 제2과선교를 만들면서 교각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중앙에 설치해 향후 도시계획상 기반시설 설치에 불가해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주변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시설에 대한 철거 또는 선형 변경 도로개설 등을 주문했다”며 “다음달 초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현장방문을 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 광주시 양양~광주노선 홍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는 20~21일 이틀 동안 광주에서 2013평창동계올림픽 공한인 양양국제공항 홍보와 양양~광주 항공 노선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마케팅에 나선다.

18일 광주시와 강원도에 따르면 최지사는 20일 광주시 변화가인 충장로에서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상철 양양군수, 노승영 코리아이스포츠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양~광주 노선 홍보활동을 펼친다.

최 지사 이날 광주우체국 앞에서

강원도와 광주시간 교류협력의 장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무료항공권과 강원도내 무료 숙박권, 강원도산 특산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 지사는 또 21일에는 광주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제10회 호남국제마라톤대회 10km 종목에 직접 출전해 양양국제공항과 양양~광주 간 노선을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양양~광주 노선 탑승률은 48%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www.fplove.or.kr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희망의 해

“부로심께 농지연금 효도선물을!”



부부모두가 평생연금보장 받고, 경작을 하거나 임대도 가능한 농지연금으로 행복한 노후 설계하세요!

| 신청자격 |

- 부부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소유농지 3만㎡ 이하

상담문의 **1577-7770**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